

지역 매아리



아름다운 작은 골목길 시범사업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 고창읍에서 어둡고 으스스한 골목길을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아름다운 작은 골목길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28일 고창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로등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골목길에 벽화와 태양광 경관등을 설치해 주민 통행 편의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해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등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병도 고창읍장은 "낙후되고 열악한 골목 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분위기를 바꾸고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볼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더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읍에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44회 고창모양성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시가지 곳곳을 환하게 밝히는 청사초롱과 국화 등 가을꽃들이 도로변에 조성되어 화사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산림조합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견학

"치유와 복지의 요람 산림"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영주에서 열리는 28일 2017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장에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한 산주, 조합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회원조합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조합원과 산주, 임원 대의원은 숲과 함께 더 좋은 삶을 위한 월경가든, 주제전시관, 목재체험관 산림전시관 등을 견학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산림이 지닌 고유가치 제조병으로 임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비전 제시 등으로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합원들의 정서함양과 임산물생산으로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견학과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웰다잉 문화체험 장소로 '주목'

서남권추모공원, 자연친화적인 선진장례문화 확산 기여

2015년 11월 개원 이후 전국적인 명품 장사시설로 자리매김된 서남권추모공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체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웰빙(well-being) 열풍에 이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죽음을 준비하며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임종체험이나 장사시설 견학 등이 대표적인 죽음 준비 과정들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서남권추모공원이 전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전복형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관련 체험·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위탁을 맡아 시행 중이다.

전북연합회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서남권추모공원 체험

을 가질 예정이다.

도내 14개 지회별로 매회 30여명씩 이곳을 방문 시설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봉안당과 잔디장 수목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이 추진되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다.

첫 일정은 지난 19일 진행됐고 이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이후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지난 24일에는 영광군 견학팀이 방문하기도 했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매달 300여명이 임종 체험을 하고 있고, 직장인과 노년층은 물론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거나 장사시설 등을 둘러본 후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삶의 계획을 세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남권추모공원이 삶

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하면서 아름답고 품위 있는 삶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인식됨은 물론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시가 공동으로 참여한 서남권추모공원은 성공적인 자치단체협력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 간 공동협업과 예산효율화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간 여러 차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정읍시 각급면 4만여명에 광역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유족동산 등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원 이후 서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획기적인 장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참여 지자체 주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강소농 우수기관 선정

경영체 정밀 컨설팅·선도 농업경영체 등 강소농 육성 노력 높은 평가 받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5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7 강소농 대전에서 강소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관련해 강소농대전은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관 A홀에서 열린다. 이번 대전에서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 판매하고 체험프로그램, 강소농 재능 기부 콘서트, 소비자 참여 농산물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기술센터는 이번 선정과 관련, 지난 2011년부터 '작지만 강한 농업, 농업의 희망' 강소농 육성에 노력해온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기술센터는 올해 들어서만 기본교육과 1박2일의 심화교육, 8회의 후속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소농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또 5개 경영체의 정밀 컨설팅,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2개소와 3개의 자율학습 모임체 육성에 주력해왔다.

강소농은 영농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이 적으면서 가족 중심적인 중소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

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관련 교육(기본, 심화, 후속교육)은 물론 농가 개개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줄 경영개선 컨설팅, 자율학습모임체 조직과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술센터는 강소농가 함께 2015년부터 '강소농 대전'에 참가해 전국 단위 성과보고는 물론 홍보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올해는 알로에사탕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영욱)이 참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드림스타트 광명시 초청 'Hello! 바비 광명동굴전' 문화체험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드림스타트는 28일 드림스타트 사례대상아동과 지역아동센터아동 및 인솔자 등 90여 명이 광명문화재단 연계후원사업의 일환으로 Hello! 바비 광명동굴전 문화체험에 다녀왔다.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1972년

폐광되기까지 다량의 황금이 채굴됐으나 폐광 후 새우젓 창고로 쓰이던 곳을 2011년 광명시가 매립해 동굴대마파코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이번 행사는 자매도시인 광명시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일제강점기 장용과 수탈의 현장 이자 해방 후 근대화·산업화의 흔적

을 간직한 광명동굴 내부를 견학했다.

이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바비인형전을 관람하고 업사이클아트센터 등을 둘러보며 폐자원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문화적 가치를 더하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부안=이옥수기자

재배기술개발·품질관리로 최고 브랜드로 우뚝 고창멜론, '대한민국 성공브랜드 대상'

달콤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고창멜론이 2017년 대한민국 성공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공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멜론이 지역농·특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민국성공브랜드대상위원회에서 주최해 다양한 브랜드를 선정하고 글로벌 시대 브랜드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는 품목에 대해 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최고의 제품 브랜드를 선정·시상하는 상이다.

'고창멜론'은 멜론 재배에 최상인 일조량과 온도차, 미네랄이 함유된 황토 서해안 해풍 등 최적의 조건에서 자라 육질이 부드럽고 15

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해 최고의 멜론으로 전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멜론 명품화단지 육성'을 위해 연구화와 작목반을 조직하여 재배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공동선별과 포장 등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일괄관리를 통한 품질관리를 해왔으며 올해 홍콩 대만 과일시장에 수출하는 패가를 올리는 등 명품 멜론으로 사랑받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민·관이 하나 되어 고창멜론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이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이미지 마케팅으로 수박 북부자 품종잡아에 이어 고창멜론을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시청 청원경찰 대상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교육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25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시청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심화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8월과 9월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 교육에 이은 후속 교육이다.

보건소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가진데 이어 이번에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와 미국심장협회가 인정한 전북과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원영덕) 등 3명의 전문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심폐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론과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병



행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상황별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청원경찰들에게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정한 이수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해경, 무등록 어선 이용 조개포획 단속

부안해양경찰서는 25일 고창군 부안면 곱소항 인근 간석지에서 무등록 선박을 타고 돌아다니며 조개류를 무단으로 포획한 김모(58, 고창군)씨 등 9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지난 25일 오후 12시 15분께 김모씨는 고창군 어촌계 양식장에서 낚자 2명, 여자 7명이 무등록 선박을 동원하여 조개류 2kg을 27망을 불법포획

다가 적발됐으며, 이는 어선의 검사를 하지 않고 운항하여 어선법 제 44조, 제21조 1항을 위반했다.

부안 해경은 "불법 채취한 해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무등록 어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항포구 및 해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